



일주문



신흥사 국운융창 범회... 박암 신원사 조실은 15일 신흥사 주회 '국운융창과 정치·경제 발전기원법회'에 보살계 전계대화상으로 참석했다.



경남 불교협 4대 회장... 세민 해인사 주지는 19일 전주 동방호텔에서 열린 경남불교협의회 회의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구칭정 보선 후보 토론회... 자용 서울 은평구 바른선거모임 회장(수석) 회주는 16일 4·26 은평구구청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월장 안동 해동사 주지는 1일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현태종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다.



4·19 문화상 받아... 신경림 시인은 4·19 정신 실현에 앞장서 온 공로로 17일 (사)사월회가 수여하는 제2회 '4·19 문화상'을 받았다.



단체상 학술부문 수상...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은 7일 '한국사 이야기' 시리즈로 단체상 제15회 학술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열린마음 클리닉' 개원...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9일 삼정동 예씨의 집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원 '열린마음 클리닉'을 개원했다.



'장기표 정치학교' 열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19일부터 서울 김상사에서 '장기표 정치학교'를 열었다.



인솔루선 회장 취임... 김양일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은 최근 소프트개발과 데이터베이스구축 전문회사인 인솔루선(주) 회장에 취임했다.



공회령서 6회 개인전... 김대일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는 25~5월 1일 인사동 공회령에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시대맞는 제도개선 추진"

진각종 새 총리원장 효암 대장사

"종단 발전을 위해 시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교구 중심으로 이관하고 대북교류, 복지, 군포교 등의 사업도 내실있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19일 열린 진각종 제25회 정기 총의회에서 제26대 총리원장에 선출된 효암대장사(50)는 전임 성초 총리원장이 추진해 왔던 대북교류, 복지, 교육, 문화 사업들을 이어 차질없이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원만한 인품과 신뢰성 있는 지도력을 인정받아 50세의 젊은 나이로 행정수반에 당선된 효암 총리원장은 이러한 종단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원로 스승들의 경륜과 지혜, 중진·소장 스승들의 열정과 패기를 적절히 조화시켜 이를 종단발전의 견인

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불교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한 전기가 바로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펼쳐질 회당대장사 탄신100주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이루어나기도록 하고 특히 젊은

젊은 세대 포교 주력 지방교구 활성화 역할

세대 포교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 종단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교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인터넷 세대에 걸맞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포교방법이어야만 시대흐름과



◀제도개혁으로 밝은 종단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밝힌 효암 총리원장(왼쪽)과 혜정 교육원장.

발전은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효암 총리원장은 진각종이 교계 최초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포교의 새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총의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에 선출된 혜정 대장사는 "전통밀교, 교법을 재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밀교 대중법회 확대, 회당학술상 제정 등 교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효암 총리원장은 총리원 재무국장 겸 문화사회부장, 제8·9대 총의회 의원, 교육원 교육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회당학원 이사, 진각복지재단 이사, 대구 희락심인당 주교, 대구교구청장 등을 맡고 있다.

혜정 교육원장은 1948년생으로 종인 사서실장, 제6·7대 총의회 의원, 진선여중교 정교, 교법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유가심인당 주교, 사서실장, 종학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이경숙 기자

"소외계층에 삶의 위안 주겠다"

서울복지원 이사장 홍파 스님

"사회가 급변할수록 빈부차가 심해져 극빈계층 소외된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을 찾아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10월 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향천노인문화센터'를 위탁받아 19일 개원식을 가진 서울복지원 이사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스스로의 힘과 원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삶의 용기와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일이 서울복지원이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노인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 노인복지는 형편없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스님은 창천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는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건강을 살피는 일을 주로 맡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홍파 스님은 종학복지센터 건립의 꿈도 살짝 내비쳤다. 이경숙 기자



부산 두송복지관 경로잔치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18일 관음사 마당에서 사하구내 노인 10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제4회 두송 경로잔치를 가졌다. 매년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관광을 실시해 오고 있는 두송복지관이 마련한 이날 잔치는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관음사 합창단 공연,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흥겹게 펼쳐졌다.

현각 스님 영주 현정사 주지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선의 나침반〉의 저자인 미국인 현각(玄覺) 스님이 경북 영주의 현정사(現靜寺) 주지로 취임했다.

스님은 22일 승산 스님을 모시고 2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법회를 봉행했다. 현정사는 불자인 정광명장(鄭光明) 보살이 스님들의 참선수행을 돕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세운 절로, 승산 스님의 허락을 얻어 주지직을 맡게 됐다.

스님은 "이번 하안거 동안 선 수행과 지도를 통해 현정사를 참선수행의 도량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4635-5529)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대한법화종 구암종정 추대식

대한불교 법화종 제6대 종정 구암대장사 추대법회가 19일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총무원장 서리 해륜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구암스님은 법어에서 "산천계곡 물소리 부처님의 설법소리인 듯 / 어느 뉘라서 그 뜻을 이해하리요 / 일단 가지 법이 일함에 든다니 / 어찌하면 원만한 사람되기를"이라고 설했다.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 취임

무량종 제2대 총무원장 혜안 스님 취임법회가 15일 경남 하동 칠보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무량종 원로원장 지은스님, 본원종 대외 총무원장, 신도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혜안스님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정신으로 종단 체제와 기틀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사 전문아카데미 첫 입학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4일 포교원 4층 강당에서 포교사전문 아카데미 제1회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에는 상운(포교원장 직대) 계성(교육원장 직대) 홍선(중앙승가대학교수) 스님, 김기병 포교사단장, 오희백 포교사전문 아카데미준비위원장과 100여명의 1기 신입생 포교사들이 참가했다.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는 1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및 부처님 오신날 기념 시낭송회를 가졌다. 이날 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은 시인 신경림 씨, 소설 부문은 소설가 한승원 씨, 평론 부문은 동국대 흥기삼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의 시낭송회가 이어졌다.

취운 선원 입방 공고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시다 새로이 선원장으로 부임하신 야산 청운 큰스님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에 동참 정진하실 제가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 하안거 결제일 : 불기 2545년 4월 15일 (음)
■ 입방 신청 마감 인원 : 선착순 50명
■ 입방 자격 :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남여 제가 불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도사 취운선원 종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Tel. 055) 383-6479 , 381-0970
Fax. 055) 384-457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서울불교대학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 Fax 02)588-8055

여래선원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대구·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모 제 1기생 집

말이나 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싸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진리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얀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얀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싸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 모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계 품위를 수여함.
모 국내외 어디든지 여래선원의 지원을 개원할 수 있음.
모 선원 개원시 직접적(경제적·인적)으로 적극 지원.
모 미얀마·국제불교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모 미얀마·국제승가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1) 모집과정
- 포교사(디플로마) : Dip(B.Dh) : Diploma in Byddha Dharma
- 교법사(학사 과정) : B.A(B.Dh)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 선법사(석사 과정) : M.A(B.Dh) : Master of Art in B. Dharma.
- 대법사(박사 과정) : Ph.D(B.Dh)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2) 입학자격
-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 각 지원에 지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 해외 유학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교육기간
- 불교기초 수료(포교사 품위) 과정 : 1년 (4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학사(교법사 품위) 과정 : 2년 (8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석사(선법사 품위) 과정 : 3년 (12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박사(대법사 품위) 과정 : 4년 (16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준
4) 수업시간
주 3일(월, 화, 수) 중 주 1회 시간 선택 필히 참석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5) 입학식
2001년 5월 2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해서 쉼 없이 정진하라!" 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선우들을 위한 시인 선방이며 원터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기록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 입방안내
1) 입방자격
종교·학력·연령 제한 없음
불교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자
2) 제출서류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여권을 사진 2매
3) 원서교부·접수기간 :
2001. 4. 20~2001. 5. 25
4) 개원식 : 2001년 5월 20일(일요일) 10시 30분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던킨도너츠 점) 에서 우측 100M(두란노 고시원 앞)